

## ‘사망설’ 김정은, 공개 활동 재개하며 견제 과시

사망설, 건강이상설 등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견제를 과시했다.

지난 2일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노동절인 5월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4월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약 20일 만이다.

방송은 “주체비료생산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순천인비료공장이 준공식이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었다.”고 전했다.

순천인비료공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7일 올해 들어 첫 현지도도 장소로 찾았던 곳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새해 첫 일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닷새 만에 순천 인비료공장을 방문하며 경제 부문에서 장기화하는 제재를 자력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다시 이곳을 찾아 사실상의 ‘복귀’를 경제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견제를 과시하고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무런 동요와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 지난 1월,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김 위원장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김 위원장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4월15일) 참배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그간 위중설, 뇌사설에 사망설까지 신변이상설이 떠돌았으나 이번 공개활동으로 견제함을 과시했다. 이날 준공식엔 김 위원장 유고 시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지목되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 아랍연맹 “이스라엘 ‘서안 합병’ 계획은 새 전쟁범죄”

아랍권 국제기구 아랍연맹(AL)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계곡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일부에 대한 합병하려는 계획에 대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L은 전날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었다. AL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비판하고 미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랍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권 22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번 긴급회의는 팔레스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6일 “몇 달 후 우리는 시오니즘(유대인의 민족국가 건설 운동)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여름 미국의 지지로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점령한 지역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부분이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재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유대인 정착촌에는 이스라엘인 약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 일본 국민 46% “정권 교체 원해”

일본 국민의 46%가 중의원(하원) 선거를 통해 정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와 집권 자민당을 향한 불신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일본 진보매체인 아사히 신문은 전날 전국 여론조사 결과 총리 교체 방식에 대한 질문에 46%가 “중의원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로 총리가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자민당 내부에서 계속 총리를 선출하는 편이 좋다.”는 답변은 44%로 2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37%는 “자민당 내 총리 선출”을 원한 반면 47%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지지했다. 40대와 50대의 48%는 “자민당 내 총리 선출”을 선호했다. 중의원 선거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에 그쳤다. 70대 이상은 과반이 넘는 51%가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41%만이 자민당에서 총리 선출을 지지했다.

지지층별로는 자민당 지지자의 경우 76%가 자민당 내 총리 선출을 지지했다. 중의원 선거를 원한다는 답변은 19%에 그쳤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자는 87%가 중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당 내 총리 선출을 지지하는 이들은 8%에 불과했다.

무당파의 57%도 “중의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했다. 자민당 내부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데는 28%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일본 내 정치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우편 여론조사를 실시한 아사히 신문은 지난 27일부터 분야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4선을 반대한 이들은 66%에 달한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